

#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8곳 중 6곳 사라졌다

## 오늘 94주년... 씁쓸한 현실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 학생들의 독립 열망을 이끌어낸 광주학생독립운동(이하 학생운동)이 94주년을 맞았으나 서훈, 사적지 관리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운동에 동참했던 수 백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여전히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외면으로 관련 연구가 미진할 뿐 아니라 사적지마저 대부분 사라지고 추가 발굴이나 보존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유공자들=(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등에 따르면 현재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받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참배실에 봉안된 독립운동가는 총 280명이다.

하지만 이 중 독립운동 서훈을 받은 수는 153명에 불과하다. 127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남북, 월북, 정치적 오점 등을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운동 주역인 고(故) 장재성(1908~1950) 선생이 대표적인데, 장 선생은 박정희 정권인

옛 광주역터 등 표지석만 덩그러니 127명은 정치적 이유 서훈 못받아 통합DB도 없어 체계적 연구 안돼 소중한 정신적 유산 복원 나서야

1962년 건국공로훈장 추서 대상자로 결정됐다. 장 선생은 지난 2월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재서훈 여부에 대해 눈길을 끌었으나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비밀결사 독서회 간부로 활동한 정해두 선생도 진실화해위원회의 항일독립운동가로 인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 선생은 학생운동 당시 광주도립병원과 향사리 시장 부근에서 시위행진을 주도했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정 선생이 출소 이후 면서기를 한 것을 '친일 활동'으로 보고 보훈부가 서훈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호 사업회 이사는 "2005년에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여운형 등 사회주의 계열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64명에게 건국훈·포장을 추서했다"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광주학생운동 관련해서는 남은 이념적 잣대를 들이밀어 서훈을 안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재성 기념사업회는 올해 장 선생을 제외하고 김범수, 정해두 선생에 대한 서훈 신청서를 보훈부에 제출했다.

◇우리 고장 역사 만나...사적지 대부분 사라져=2일 보훈부에 따르면 학생운동 사적지는 총 8곳이다. 옛 광주역 터(현 동부소방서)와 광주 토교(대인시장 동문다리), 옛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일고),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전남여고), 전남 사범학교 터(중앙도서관), 옛 광주농업학교(북구임동-광주자연과학고), 김기권 문방구점 터(금대로공원), 옛 나주역사 등이다. 이 중 사적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은 광주일고와 전남여고뿐이고 나머지는 흔적조차 없는 상태다.

옛 광주역터, 전남사범학교터, 김기권 문방구점(장재성 뺑뺑) 터 등지에는 1m 남짓 크기의 표지석을 세워 둔 것이 전부다.

북구 임동 92번지의 옛 광주농업학교 터에서는 비석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며, 광주 토교 역시 대인시장 입구에 적힌 '동문다리 입구'라는 문구 외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학생운동을 주도한 장석천 생가 또한 이미 사라져 문구점 등으로 변했다.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흔적마저 사라질 처지다.

이와 관련 사업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광주·일분 학생들 간 첫 충돌지인 옛 광주역을 역사문화관으로 복원하고 시내버스 1103번 노선을 신설해 투어프로그램 연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환호 사업회 이사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은 5·18과 함께 광주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자랑스러운 정신적 유산"이라며 "광주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옛 광주역사를 복원해 학생독립운동의 정신과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책이나 연구논문이 있긴 하지만 학생독립운동가 개인의 삶을 추적한 연구 등 기초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구심점이

없고, 지자체의 한정적 지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올해 연구비 명목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아 최근 연구 실적은 지난해 학술대회를 한 차례 연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논문·연구성과 등을 한 데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 연구 속도를 못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우권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소장은 "연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구술과 기록 정보, 사료 등을 모아 통합 DB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가보훈부와 재외포교청 등이 중심이 돼 역사를 정리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부는 3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타오르는 그날의 불꽃으로'를 주제로 학생독립운동 정부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서는 독립운동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 독립운동가 94명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공적이 함께 수록된 명예 졸업사 진첩을 헌정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학생독립운동 해외 지지·후원 보답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들에 한복 보낸다

### 전남여고총동창회 등 추진

전남여고 총동창회 등이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해외에서 지지·후원을 보내 준 멕시코·쿠바 한인들의 후손에게 한복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전남여고총동창회와 전남여고장학재단,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학생독립운동여학교 기념역사관 등은 이날 말까지 기금 및 한복을 수집

해 멕시코·쿠바 한인 디아스포라 후손들에게 한복을 보내는 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한복은 1905년 대한제국을 떠나 멕시코에 정착했던 한인 1033명, 1921년 멕시코에서 쿠바로 재이주한 한인 300여명의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운동은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단 김재기 교수 연구팀이 최근 1929년 당시 멕시코·쿠바 한인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한 사

실을 확인함에 따라 추진된다.

1930년 2월 미국에서 발간된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에는 멕시코 한인 200여명이 특별후원금 200달러를, 쿠바 한인 100여명이 특별후원금 100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들이 최근에도 매년 3·1절과 8·15 광복절에 한복을 입고 기념식을 열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전통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후손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운동에는 광주전남기자협회를 비롯해 20여개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는 행과 광주은행 노동조합도 기금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공비축미 수매 2일 광주시 광산구 동곡농협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2023년산 건조벼 첫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총 3179t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점장·알바생 막가파식 절도·횡령에... 편의점 주인 '눈물의 폐업'

### 담배·음식 빼돌리고 무단외출

전남대 후문의 한 편의점이 알바생 등의 비위로 개업 1년만에 폐업한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한 편의점 점주 A씨는 이달 7일부로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폐업 예정 공지와 함께 지난달부터 전품목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A씨는 개점 첫달부터 이어진 점장과 알바생의 횡령 등으로 인해 "장사를 하면 할 수록 손해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편의점은 지난해 10월 21일 문을 열었다. A씨는 개점과 동시에 B씨를 점장으로 채용했다. B씨는 물품발주, 아르바이트생 면접 등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 권한을 맡았다.

하지만 B씨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총 132

회에 걸쳐 80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문화상품권, 구글기프트카드 등을 본인 휴대폰 계정에 무단 등록했다. 또 슈퍼바이저 권한을 이용해 편의점 본사담당자(OFC)에게 기프트카드 1일 한도 금액을 늘릴 것을 요청했으며 A씨에게 알림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휴대폰으로 알림 번호를 교체하려 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말 등 B씨가 개인적으로 흡진 물건 값은 52만여원에 달한다.

A씨는 B씨를 올해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에게는 올해 6월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 8월 또 다른 알바생 C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올해 5월 5일부터 15일까지 단기간 근무했다. C씨는 이 기간동안 18만원을 3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씨는 이외에도 신분증 확인없이 미성년자에

게 주류를 판매해 100만원의 벌금을 청구받게 하고 야간 근무 3시간동안 편의점 문을 닫고 무단외출, 담배와 편의점 음식 무단 갈취 등 다른 알바생들의 행위도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문제로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한 A씨는 개점 4달만에 편의점 본사에 판매대금 1200여만원을 송금하지 못해 내용 증명을 받기도 했다. 건물세(월 150만원)를 수개월 간 내지 못했고 알바생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씨는 "개업 초기부터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해 대출을 받아야 했다"며 "판매수익으로 인건비, 임대료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돈을 열면 열수록 적자인 상황이라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